

페리클레스

등장인물¹

| | |
|----------|----------------------|
| 가우어 | 내레이터 |
| 페리클레스 | 타이어의 왕 |
| 타이자 | 펜타폴리스의 공주. 페리클레스의 아내 |
| 마리나 | 페리클레스와 타이자의 딸 |
| 헬리카누스 | 페리클레스의 충신 |
| 사이머니디스 | 펜타폴리스의 왕. 타이자의 아버지 |
| 리시마커스 | 미틸레네의 영주. 마리나와 정혼 |
| 리코리다 | 마리나의 유모 |
| 세리몬 | 에페수스의 지도자 |
| 안티오쿠스 | 안티오크의 왕 |
| 안티오크의 공주 | 안티오쿠스의 딸 |
| 탈리아드 | 안티오쿠스의 자객 |
| 클레온 | 타서스의 왕 |
| 다이오니자 | 클레온의 아내. 타서스의 왕비 |
| 레오나인 | 클레온의 자객 |
| 판다 | 미틸레네 매음굴 주인 |
| 볼트 | 미틸레네 매음굴 하인 |
| 뚜쟁이 | 미틸레네 매음굴 뚜쟁이 |

안티오크의 시녀들
안티오크의 전령 (1인)
타이어(페리클레스)의 신하들
타서스(클레온)의 신하와 백성들
펜타폴리스의 어부들 (3인)
펜타폴리스의 시종, 시녀, 기사 들
펜타폴리스의 선장과 선원들
타서스와 미틸레네의 해적들
미틸레네 신사들
에페수스의 여사제들
* 위의 인물들은 남녀 광대들이 상황에 따라 배역을 맡는다.

¹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등장인물의 이름과 지명 등 고유명사 표시

² 원본의 영주 또는 왕자 등을 왕으로 통칭. cf) 원제: Pericles, Prince of Tyre.

프롤로그

조명. 황무지.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른 노년의 페리클레스가 앉아있다.

한 쪽에서 가우어 등장.

가우어1(진양조):

천지는 만물이 목어가는 유랑처요
세월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나그네라
여기 영광으로 빛나던 타이어의 왕 페리클레스
아내 잃고 딸도 잃고 이제 자신마저 잃어
몸도 마음도 헐벗은 광야 신세로구나

바람아 불어라 천둥아 울어라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어도
페리클레스 눈물 가릴 수는 없으리라.

조명 어두워지고 페리클레스, 퇴장.

1막

1막1장

가우어2(중머리):

이에 나 가우어 노래하노라
잔인한 세파가 페리클레스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지혜롭고 혈기 넘치던 페리클레스에게
어찌 그리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는지
나의 이 노래가 그대들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 다시 한 번 불꽃으로 타올라
그대들 가슴의 심지를 태우리라.

장소 안티오크

* 인형그림자극

가우어2(중중머리):

여기, 이 곳은 지중해라.
북으로는 어디가 있고 남으로는 어디가 있고
동으로는 어디가 있고 서으로는 어디가 있는데
동서로 오고 가는 바다는 비교적 평안하나
남북으로 오가는 바다는 풍랑이 드센지라.
한 번 오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더더라.

가우어2(작은머리):

자, 이 곳은 안티오크
안티오크스 라는 자가 자신의 권좌를 위해
지중해의 동쪽에 세운 시리아의 수도라.
하나 안티오크스의 왕비는
외동딸만 남긴 채 먼저 세상을 떴는데

딸의 미모가 달이 숨고 꽃이 질투할만한 일색이라
 안티오쿠스 왕이 청혼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맞추면 정혼의 약속을 내리되
 만일 맞추지 못하며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목숨을 건 수수께끼 목숨과 바꾸는 수수께끼
 여태껏 목숨을 건진 청혼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안티오쿠스와 페리클레스 등장.

안티오쿠스 타이어의 왕, 페리클레스, 이제 알겠소?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 딸과 결혼하겠지만 못 맞추면 죽게 될 것이오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느냐 말이오
 이미 수 많은 명망높은 용사들과 왕들이 죽음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했소

페리클레스 예, 안티오쿠스 왕이여, 잘 압니다.
 하지만, 따님을 칭송하는 이야기 또한 들으니, 용기가 솟습니다.
 저는 죽음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공주를 들여보내라.

안티오쿠스의 공주와 시녀들 등장. 안티오쿠스의 공주는 얼굴을 베일에 가리고 등장.

* 안티오쿠스의 시녀들은 광대들이 맡는다.

페리클레스 아, 저 얼굴은 봄날 그 자체로구나.
 찬미의 노래가 가득 쓰여진 책과 같다.
 오직 신비스러운 쾌락만이 쓰여있을 뿐, 슬픔이나 분노는 흔적조차 없다.
 신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남자로 만들었고, 사랑에 빠지게 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천상의 열매를 맛보게 하든지, 아니면 모험 중에 죽게 하소서.

안티오쿠스 페리클레스 왕이여 -.

페리클레스 시위라 불러주십시오.

안티오쿠스 내 딸, 헤스페리디스요, 천사처럼 이름답지 않소?
 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오.

페리클레스 저에게 목숨이 얼마나 덧없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곧 저렇게 될 지 모르겠군요.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주에게) 저의 흠 없는 사랑은 오직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안티오쿠스에게) 전하, 저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그 어떤 것에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좋아, 그럼 이 수수께끼를 읽어보시오
 (페리클레스에게 수수께끼를 준다)
 읽고도 풀지 못하면, 정해진 대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안티오쿠스의 공주. 페리클레스, 당신에게는 행운이 있기를, 당신만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페리클레스 용사답게 시험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만을 가지겠습니다.

(수수께끼를 읽는다)
나는 살모사가 아니지만 날 길러준 어미의 살을 먹고 산다
남편을 맞으려 하였으나 결국 아버지가 그 친절을 빼앗았네
그는 아버지이자 사위요, 자상한 남편
나는 어머니이자 아내요, 그의 자식
어떻게 그렇게 둘이서 여럿일 수 있는지, 살고 싶다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리

(방백) 마지막 구절이 심장을 찌른다. 피가 말라붙는 것 같다.
인간을 지켜보는 신들이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으십시오
(공주에게) 당신은 빛으로 빛은 유리잔처럼 이름답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싶지만
(공주의 손을 잡는다) 이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니.
그 안에 죄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안티오크의 공주:

아!

안티오크스

페리클레스 왕, 공주에게 손 대지 마시오
이 나라의 엄중한 법이오
시간이 다 됐으니 답을 말해보시오 아니면 내가 선고를 내리겠소.

페리클레스

위대한 왕이여, 자기가 사랑하는 죄악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가졌다면, 그 책은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하께서 아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남이 알아서 안될 일은 덮어 두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 목숨을 귀하게 여기니, 제가 입을 다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안티오크스

(방백) 알아챘구나. 허나 일단은 마음을 놓게 해야 해 -.

타이어의 왕이여, 그대의 답은 틀렸소
따라서, 우리의 법대로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그대는 너무 아까운 젊은이이오
40일 말미를 줄 테니 수수께끼를 풀어보시오
내 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훌륭한 사위를 얻고 싶소
그 때까지 왕의 신분에 맞게 융숭히 대접하리다.

판과레, 페리클레스 외 모두 퇴장

페리클레스

위선자! 예의 바른 척하는 것으로 죄를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허울만 좋을 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풀이가 맞는다면, 너는 아버지인 동시에 사위.
딸과 몸을 섞다니, 그 쾌락은 아버지가 아닌 남편의 것이어야 하지 않은가.
딸 역시 자기 어머니의 잠자리를 더럽히다니,
마치 어미의 살을 뜯어 먹는 독사 같다.
둘 다 독사처럼 달콤한 꽃을 먹으면서 뱃속에는 독즙을 만들고 있어.
안티오크여, 잘 있거라! 도망쳐서 위험을 피해야겠다.

안티오쿠스 등장:

안티오쿠스 놈이 알아챘어. 당장 죽여야 해.
세상에 내 추악한 죄를 떠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이 놈을 죽여야 돼.
누구 없느냐?

탈리아드 등장:

탈리아드 부르셨습니까?

안티오쿠스 탈리아드 너는 내가 가장 믿는 부하이다.
비밀리에 임무를 맡기겠다.
자, 독약이다. 내가 타이어의 영주를 몹시 증오하니, 그를 죽여라.
이유는 묻지 마라. 할 수 있겠느냐?

탈리아드: 예, 폐하.

안티오쿠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안티오쿠스의 전령 급히 등장:

* 전령은 광대들 중 1명이 맡는다.

안티오쿠스의 전령: 전하 페리클레스 영주가 도주했습니다.

안티오쿠스 (탈리아드에게) 어서 쫓아라!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그를 죽여라.
(탈리아드 퇴장) 페리클레스가 죽기 전엔 내 마음이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1막 2장

장소 타이어 - 페리클레스의 영지

페리클레스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등장:

페리클레스 혼자 있고 싶다. (신하들 머뭇거리며 퇴장하려는데)
심란하고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다.
안티오쿠스는 강하고 나는 그에 맞서 싸우기엔 미약하다.
그가 자기 군대로 이 나라를 휩쓸면, 온 나라가 공포에 빠질 것이고,
우리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
결국 고통 당하는 것은 죄 없는 백성들.
나는 나무 끝에 달린 가지일 뿐, 백성들이야말로 나의 뿌리이다.
나의 뿌리인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왕의 의무이거늘.
이런 근심에 내 몸과 영혼이 시들고, 적보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괴롭힌다.

헬리키누스 등장: 신하들이 페리클레스 앞에 선다.

* 다음의 신하,23은 광대들이 맡는다.

신하: 전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깃드소서!

신하2: 전하께서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실 때까지 부디 평화롭고 평안 하소서

신하3: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사오니 전하께서는 마음을 폭 놓으시옵소서!

헬리카누스: 조용히 하시오 왕에게 아첨하는 자는 왕을 망칠 뿐이요
충직하고 올바른 책망이야말로 왕에게 약이 됩니다.
왕도 인간이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전하, 용서하십시오. 아니, 원하신다면 저를 치셔도 좋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페리클레스: (다른 신하들에게) 다들 물러가시오 (신하들 퇴장)
헬리카누스, 말을 함부로 하는 군. 지금은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헬리카누스: 노하신 것 같습니다.

페리클레스: 왕을 화나게 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모르는가?
어떻게 감히 내 면전에서 그런 무엄한 말을 하는가?

헬리카누스: 풀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비록 하늘에서 모든 자양분을 받을 지라도 말입니다.

페리클레스: 나는 그대를 죽일 수도 있다.

헬리카누스: (무릎을 꿇으며) 도끼 날을 제 손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그저 내려 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페리클레스: 일어나요, 어서. 앉으시오. 경의 지혜 앞에 나는 경의 왕이 아닌 종이 됩니다.
경은 왕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문이자 충복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헬리카누스: 전하께서 스스로 젊어지신 괴로움이니 스스로 참아내셔야지요.

페리클레스: 다 얘기 하겠습니다. 안티오크에 갔었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아름다운 공주를 얻고 싶었소
후계자를 낳아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였지.
그리고 공주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지만..., 더러운 추악한 근친상간을 내가 알아채자 그 아버지는 일단 날 화유하려 들더군요.
허나 폭군이 입 맞추려 할 때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순간.
그래서 밤을 틈타 도망쳐 왔네.
그자는 폭군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나를 반드시 찾아내어 죽일 것이요
그러면 이 나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
결국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아무 죄도 없이 전쟁으로 희생될 것이요

헬리카누스: 아, 아, 전하!

페리클레스: 잠을 잘 수가 없소. 이 폭풍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수천 가지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하지만 내 백성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저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다는 왕이 할 수 있는 전부란 말인가!

헬리카누스 전하, 허락하셨으니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티오커스를 두려워하심은 당연합니다. 그지는 반드시 전하의 목숨을 노릴 겁니다.
그러니, 전하, 잠시 여행을 하시던 어떻습니까?
그자가 분노를 잊을 때 까지든, 운명이 그 명줄을 끊어놓을 때 까지든,
국사는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만약 저에게 맡기신다면, 낮이 빛을 삼키는 것도 제 충성심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페리클레스 경의 충성심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틈을 타 전쟁을 일으키면 어쩍니까?

헬리카누스 피로서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페리클레스 타이어여, 잠시만 너와 이별하겠다.
우선 타서스로 갈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로 연락 주십시오.
백성들을 이제 경에게 맡깁니다.
지혜롭게 감당해 내리라 믿습니다. 경의 약속을 믿고, 맹세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정해진 길을 온전하게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른 뒤, 경은 백성의 본보기가 되고, 나는 진정한 군주가 될 것이오.

1막 3장

가우어(중머리): 이때여 안티오커스의 자객, 타이어에 도착했으나
다행이도 페리클레스는 방랑의 길을 떠난 직후라
허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더니
고난을 피해 떠난 페리클레스의 그 길이
그토록 괴란만장 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타이어를 떠나 처음 도착한 곳은 타서스인데
해마다 몰아친 기근으로 백성들은 굶주리고
사방이 메말라서 황폐하기가 그지 없구나.

장소 타서스-클레온의 영지
타서스의 왕 클레온과 왕비 다이오니자 등장.

타서스의 백성 또는 신하들도 함께 등장 * 타서스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광대들이 맡는다.

클레온: 오, 다이오니자, 우리가 몇 년 째 겪고 있는 이 슬픔을 이야기로 풀어내 보면 슬픔이 조금 덜어질까? 내가 숨이 차 말을 할 수 없게 되면, 부인이 눈물로 도와주세요.

다이오니자: 그러지요.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클레온: 내가 통치하는 이 타서스는 넘치도록 풍요로운 도시였지. 재물이 넘치고, 산해진미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가난은 조롱 당하고, 자만심은 높아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말이었어.

다이오니자: 정말 그랬지요.

클레온: 그러나, 하늘이 우리에게 한 일을 보시오. 모든 게 메말라 버렸어. 모두가 굶주림에 미쳐가고 있어. 어미들은 자식을 잡아먹을 판이고, 부부는 재비를 뽑아 누가 먼저 죽어 누구를 살릴 지를 결정하고 있던 말이지. 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묻어 줄 힘조차 없다구.

다이오니자: 우리 여윈 뺨과 썩은 눈이 그 증인이지요.

클레온: 풍요의 술잔과 온갖 영화를 탐닉하고 있는 도시들이, 타서스의 불행이 언젠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타서스의 신하 등장 * 타서스의 신하는 광대 중 1명이 맡는다.

신하: 총독님 어디 계십니까?

클레온: 여기 있소. 말해 보시오, 슬픈 소식이겠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리가 없지.

신하: 인근 해안에 여러 척의 큰 배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클레온: 그럴 줄 알았어. 슬픔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거야.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쳐들어 오고 있는 거야. 이겨 봤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신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백기를 달았답니다. 화친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클레온: ‘걸 모양을 꾸밀수록 속은 추악하다’는 격언도 모르나? 마음대로 하라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이미 까마득한 무덤 속에 절반은 들어와 있는 걸 저쪽 지휘관에게 전하시오. 내가 여기 있다고.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 무얼 원하는지 들어나 보자고.

신하, 인사하고 퇴장

클레온: 평화를 원한다면 물론 환영이지만, 전쟁을 원한다 해도 저항할 힘이 없다.

신하가 페리클레스를 안내하며 다시 등장 * 페리클레스 일행은 상황에 따라 변동.

페리클레스 총독 각하,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저의 일행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이어에서 왔습니다. 이 곳의 불행을 들었고, 직접 거리의 황폐함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빵을 만들 곡식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배와 선원들이 머물 수 있도록 거처를 허락해 주시기 바라는 것뿐입니다.

클레온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잊거나, 마음으로라도 배신을 한다면
아내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나 자신일지라도 하늘과 사람의 저주를 대대로 받을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페리클레스 그 환영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지금은 나에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운명의 별들이
다시 미소 지어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퇴장

2막

가우어4(아니리): 이렇듯 페리클레스는 낯선 지역에 와서도
백성을 구휼하는 일에 앞장서니 모두들 그를 칭송하였거날
인생사 호사다미라,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느냐?
안티오키투스 왕이 보낸 그 자객이 페리클레스가
타서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타서스로 향하거날,
이를 알아챈 충신 헬리카누스가 자객보다 더 빨리 급보를 보냈었다.
타서스도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닌지라,
페리클레스 재빨리 타서스를 빠져나와
다시 만경창과 바다로 나가는데, 풍량이 예사롭지 않구나.

장소 바다 → 펜타폴리스
* 인형그림자극

가우어4(엇모리): 한 곳에 당도하니 광풍이 대작한다.
어룡이 싸우난 듯 벽력이 나리난 듯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쳐
안개 뒤섞여 자욱한데
갈 길은 천리 만리나 남고
사면은 검어 어둑 저물어져
천지 적막하니 까치누(까치놀=너울) 은 떼들어와
뱃전 머리 탕 탕, 물결이 와르르르, 출렁 출렁
고개 들면 천둥이요, 고개 숙이면 심해라.
페리클레스 탄 배가 갈 바를 모르더니
노도 잃고 닻도 잃고 돛대가 와직근
키도 빠져버리고 용충줄 끊어져
페리클레스 탄 배를 산산이 쪼개놓이
딱하구나 페리클레스
목숨만 겨우 부지하여 파도에 휩쓸리는데
운명의 여신도 그를 괴롭히는데 지쳤는지
페리클레스를 어느 이름 모를 해변가에 던져 놓는구나.

2막1장

페리클레스, 비닷물에 젖은 채 등장. 천둥 번개

페리클레스: 하늘의 성난 별들이여, 분노를 그쳐 주시오!
바람, 비, 천둥이여, 기억해 주시오! 인간은 자연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
나도 내 본분대로 그대들에게 순종하오
한 왕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으니, 그 위대한 힘 이제는 만족하지 않았는가?
이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어부 세 사람 등장. * 다음의 어부1,2,3은 광대들이 맡는다.

어부1: 야, 가족데기!

어부2: 어이, 와서 그물 치워!

어부1: 뭐 해, 똥 싼 바지! 안 들려?

어부3: 나 똥 안 싼어요.

어부1: 왜 그렇게 꾸물대고 지빠졌어! 그냥 올 거야, 한 대 맞고 올 거야?

어부3: 형님, 방금 전에 우리 눈 앞에서 풍랑에 휩쓸려 간
가엾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요.

어부1: 에고, 불쌍한 사람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그래도 우리 몸뚱이 하나도 가누기 힘든 형편이었으니.

어부3: 형님, 고래가 물 위로 펄쩍펄쩍 튀어오르는 걸 보고 내가 말 했잖아요.
하여간 그 놈들이 날뛰기만 하면 태풍이 와서 죄다 싹 쓸어간다니까요.
형님, 물고기들은 바다 속에서 어찌 살까요?

어부1: 사람이 땅에서 사는 거랑 똑같지 뭐. 큰 놈이 작은 놈 먹어 치우면서.
돈 많은 노랭이들은 딱 고래 같잖아.
별 지랄발광을 다 하면서 작은 물고기들을 자기한테로 몰고 와서
결국 한 입에 다 삼키잖아. 그런 고래들이 육지에도 득시글거리잖아.

페리클레스 (방백) 맞는 말이군.

어부3: 그런 고래 같은 놈들은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는 건데.

페리클레스 (방백) 이 어부들은 바다에 빗대어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인간이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할 지혜를 자기들이 일하는 곳에서 얻고 있어.
(어부들에게) 수고가 많소, 착한 어부들 -.

어부2: ‘착한’은 무슨 에고, 꼴이 그게 뭐요? 흥하게스리.

페리클레스 바다가 나를 이 꼴로 해안가에 던졌소.

어부2: 바다가 술에 떡이 됐었구먼.

페리클레스 물과 바람이 나를 공으로 삼아 실컷 가지고 놀았소.
그러니, 제발 불쌍하게 봐주시오.
나는 이전에는 한 번도 구걸을 해본 적이 없소 하지만, 간청하오.

어부1: 뭐, 이 사람 구걸 할 줄 모른다고?
이 나라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 해서 버는 것보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버는 걸.

어부2: 그럼 고기 낚을 줄은 아냐?

페리클레스 해본 적 없소.

어부2: 그럼 굶어 죽어야겠구먼 요즘은 낚시질 하지 않고는 뭘 건질 수가 없는 세상인데

페리클레스: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소
지금 나는 온 몸이 얼어붙어 도와달라는 말만 겨우 할 수 있을 뿐이오
도와주지 않겠다면, 내가 죽으면, 나도 사람이니, 잘 묻어나 주시오

어부1: 죽어? 안되지! 이거 어서 입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잘 보니, 잘 생긴 양반이구먼 우리 집으로 갑시다. 뭘 좀 먹자고

페리클레스: 고맙습니다.

어부2: 그럼 난 가서 그물 얼른 걷어 올게

어부 2,3 퇴장

어부1: 여보쇼, 여기가 어딘 지 아시오?

페리클레스: 모르오

어부1: 여기는 펜타폴리스란 데고, 우리 임금님은 착하신 사이머니디스 왕이시오

페리클레스: ‘착하신 사이머니디스 왕?’

어부1: 그렇지. 평화롭게 다스리시고, 선하게 통치하시니 그렇게 불릴 만 하시지.

페리클레스: 백성에게 그런 말을 듣다니, 행복한 왕이군. 이 해안에서 궁정까진 얼마나 되요?

어부1: 글썄, 한나절쯤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 임금님께 아주 예쁜 공주님이 계시거든.
내일이 생일이신데, 우리 공주님 사랑을 차지하려고,
시방에서 왕자들, 기사들이 몰려와 무술 시합을 벌인데.

페리클레스: 아, 그 시합에 나가도록 내 운명에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부1: 여보시오, 세상일은 다 순리가 있는 거요.
안 되는 걸 억지로 손에 넣으려고 하면, 마누라까지 팔아먹게 된다고

다른 두 어부가 그물을 끌어 올리며 등장

어부2: 형님, 도와줘요! 도와줘!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 걸렸는데, 아주 요지 부둥이야!
빠져 나오질 않아. 이런 염병, 나왔다. 어, 이건 뭐야. 녹슨 갑옷 아냐.

페리클레스: 갑옷? 어디 봅시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갑옷.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엄하게 당부하셨지.
“나의 페리클레스, 이것을 잘 간수해라. 죽음에 맞섰을 때 나를 지켜준 방패다.
네가 위기에 처한다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딜 가든 가지고 다니며 아꼈었는데, 상난 바다가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더니
이제 진정이 되니 다시 돌려주는구나.

고맙다.

어부1: 뭔 소리를 하는 거요?

페리클레스 부탁입니다. 이 갑옷을 내게 주시오. 이것은 한 때 어느 왕이 입었던 것이요.
 그분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소.
 그분을 생각해 이것을 내가 갖고 싶소. 그리고, 나를 공정으로 안내해 주시오.
 이것을 입고 귀족의 모양을 갖추어 가겠소.
 지금은 바닥에 있는 나의 운명이 나아진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소.

어부1: 그럼 당신도 공주님 때문에 시합에 나가겠다는 거요?

페리클레스 내 무술 실력을 보여줄 거요.

어부1: 좋소. 갑옷은 당신 거요. 행운을 빌어요!

페리클레스 이제, 내 의지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명예이다.
 오늘, 나는 일어서거나, 아니면 불행에 불행을 더하게 될 것이다.

2막 2장

나팔소리, 사이머니디스와 타이자 등장. 뒤를 이어 타이자의 시녀들, 펜타폴리스의 신하와 시종들 등장.

* 시녀, 신하, 시종들은 광대들이 맡는다.

사이머니디스 기사들은 시합할 준비가 되었는가?

신하: 예. 전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머니디스 공주야, 참 이름답구나. 보는 사람마다 경탄할 만큼 완벽해.

타이자: 아빠는 칭찬하시는 것이 즐거우시겠지만 저는 부끄럽습니다.

사이머니디스: 아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해.
보석을 그냥 버려두면 광채를 잃듯이, 왕족은 누가 찬양해 주지 않으면
그 이름을 잃게 되는 거야.
이제, 기사들이 저마다 기문의 문장을 내밀면, 그것을 설명하거라.
그것이 너의 특권이란다.

타이자: 예, 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팔소리. 첫 번째 기사가 화려하게 무장하고 지나가고, 그의 시종이 주인의 문장이 그려진 방패를 타이자에게 준다.

* 인형/그림자극. 이후 등장하는 기사들

사이머니디스: 첫 번째 기사는 누구냐?

타이자: 스파르타의 기사입니다, 아빠.
방패에 그려진 문장은 태양을 향해 손을 뻗는 에티오피아 흑인인데
“그대의 빛은 나의 생명”이라 써어 있어요.

사이머니디스: 널 자기 생명으로 여긴다니 널 무척 사랑하는구나.

기사와 시종 퇴장. 나팔소리. 두 번째 기사가 지나가고, 그의 시종이 방패를 타이자에게 건넨다.

사이머니디스: 두 번째 기사는 누구자?

타이자: 마케도니아 왕자예요, 아빠.
방패에 그려진 문장은 여인에게 정복당한 무장한 기사예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쓰여있네요.

나팔소리. 세 번째 기사가 지나가고, 그의 시종이 방패를 타이자에게 건넨다.

사이머니디스: 그럼 셋째는 누구냐?

타이자: 안티오크 출신이고, 방패의 문장은 기사도의 화환인데
“시합의 명예가 나를 이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나팔소리. 네 번째 기사가 지나가고, 그의 시종이 방패를 타이자에게 건넨다.

사이머니디스: 네 번째는 누구냐?

타이자: 불타는 횃불을 거꾸로 들었네요. “내게 생명을 주는 이가 내 생명의 불을 소멸시킨다.”

사이머니디스: 이름다움이 힘과 의지를 지녔다는 뜻이다. 불을 붙이기도, 끄기도 한다는 말이지.

나팔소리. 다섯 번째 기사가 지나가고, 그의 시종이 방패를 타이자에게 건넨다.

타이자: 다섯 번째는 구름이 휘감고 있는 손인데, 진짜 순금을 쳐들고 있어요.
“이렇게 진실은 시험하다”라고 쓰여있네요.

나팔소리. 여섯째 기사인 페리클레스가 녹슨 갑옷과 승마 스커트를 입고 시종도 없이 등장한다. 그는 타이자에게 직접 자신의 문장을 바친다.

사이머니디스 저토록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여섯 번째, 마지막 기사는 누구냐?

타이자: 이방인 같아요. 그런데 들고 있는것은 끝만 푸른, 시든 나무 가지고요. 거기에 “이 희망 속에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붙여놓았네요.

사이머니디스 제법 괜찮은 문구로구나. 지금은 절망에 빠져있으나, 너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꽃 피길 소망한다.

신하1: 그런데 차림새가 저게 뭐니까? 녹슨 꼬라지로 봐서는 말이나 몰던 자 같습니다.

신하2: 이런 영예로운 시합장에 기괴망측한 차림새라니! 이방인이 틀림없습니다.

신하3: 일부러 갑옷을 녹슬게 했다가 흙 바닥에 문질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이머니디스 결만 보고 사람의 속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나팔소리

사이머니디스 가만, 시합을 시작하라.

* 인형그림자극: 기사들의 무술시합

2막3장

사이머니디스와 타이자 등장.

시종들, 기사들, 그리고 그 밖의 의전관, 귀부인들 등장. 악사 등장. * 광대들이 번갈아 가며 맡는다.

* 인형그림자극: 그 밖의 인물들과 무술시합을 마친 기사들.

사이머니디스 기사 여러분,
자, 마음껏 즐기도록 하시오. 여러분 모두가 왕자들이며, 내 손님이오.

타이자: (페리클레스에게) 하지만 저에겐 당신이, 나의 기사이며, 손님입니다. 당신에게 이 승리의 화관을 드릴게요. 오늘 이 행복한 날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페리클레스 제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공주님.

사이머니디스 자, 공주, 너는 오늘 축제의 여왕이다. 이리로 오너라. 운이든, 실력이든, 오늘은 그대의 날이오. 여기 있는 사람 중 그것을 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네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으니까.
 자, 공주, 너는 오늘 축제의 여왕이니, 여기 앉거라. 나머지 분들도 자리에 앉으시오.

페리클레스 음식도 맛을 모르겠다. 공주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

타이자: 결혼의 여신이며, 먹는 것 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저분이랑 같이 먹고 싶은 생각뿐이야!
 (사이머니디스에게) 정말이지, 용맹스러운 신사예요.

사이머니디스 일개 시골 기사일 뿐이다.
 다른 기사들 보다 뛰어나기는 했다만, 막대기 몇 개 부러뜨렸을 뿐이야. 잊어버려라.

타이자: 내 눈에는 유리 속에 섞여있는 다이아몬드 같아요.

페리클레스 저 왕은 내 아버지와 많이 닮으셨다.
 내 아버지도 한때 별 같은 왕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어 태양처럼 우러러 보았었는데.
 아들인 나는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 있구나.
 그리고 보면 시간이 인간의 왕인 거야. 인간의 부모이자, 무덤.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은 주지만, 인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

사이머니디스 기사 여러분, 재미있게 즐기고 있소?

기사 3: 전하께서 함께 계신데, 즐겁지 않을 리 있습니까?

사이머니디스 자, 한잔 합시다. 그대들은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을 위해,
 나는 그대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
 가만 있어봐라. 저 기사는 여전히 우울하게 앉아있구나.
 이 궁정의 대접이 시원치 않다는 건가? 타이자, 안 그러냐?

타이자: 그제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사이머니디스 아니다, 잘 들어라.
 왕은 자고로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러 온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가서 좀 즐겁게 해 주어라. 내가 이 큰 잔으로 자기를 위해 건배한다고 전해.

타이자: 싫어요, 아버지. 처음 보는 기사한테 그렇게 당돌하게 구는 것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서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이 먼저 선물을 주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사이머니디스 뭐야! 꼭 화를 내야 말을 들겠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타이자: (방백) 저분만큼 날 기쁘게 하는 분은 없어.
 (페리클레스에게 가서 잔을 권한다.) 제 아버지, 왕께서 기사님께 건배를 하셨습니다.

페리클레스 감사합니다.

타이자: 이 술이 기사님께 생명의 피가 되기를 바라합니다.

페리클레스 전하와 공주님,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전하께 제 충성을 맹세합니다.

타이자: 또, 아버지께서는 기사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페리클레스 저는 타이어 출신의 귀족이고, 이름은 페리클레스입니다.
음악과 무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험을 찾아 떠났다가,
거친 바다에게 배와 부하들을 빼앗기고, 난파한 후, 이 곳 해안가에 밀려왔습니다.

타이자: 아버지께 감사한데요, 이름은 페리클레스, 원래는 타이어 출신의 귀족인데,
단지 운이 나빠서, 바다 때문에 배와 부하들을 잃고 여기 해안가에 떠밀려 왔대요.

사이머니디스 저런, 그런 불행을 당하다니. 더 이상 우울해 하지 않게 도와주어야겠다.
자, 무료하기 그지 없소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말고, 춤을 춥시다! 춤
(페리클레스에게) 이리 오게. 여기 춤 추고 싶은 아가씨가 또 있으니. 듣자 하니, 타이어의
기사들은 춤을 잘 추고, 여자들을 춤추게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더군.

페리클레스 춤을 배운 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하.

사이머니디스 아, 겸손이 지나치면 그것도 좋지 않아.

기사들과 숙녀들, 그리고 그들 속에 섞여 페리클레스와 타이자가 춤을 춘다.

사이머니디스 자, 이제 떨어져요, 떨어져!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했어요.
(페리클레스에게) 그래도 그대가 제일 잘 했소
(신하들에게) 불을 밝히고, 기사들을 숙소로 모셔라!
(페리클레스에게) 그대의 방은 내 옆 방으로 준비하라 일렀네.

페리클레스 기꺼이 전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이머니디스 사랑을 속삭이기엔 밤이 너무 늦었소. 계속 하고 싶겠지만, 이제 그만 쉬러 갑시다.
내일 또 다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오.

모두 퇴장. 페리클레스만 남는다. 약사가 남기고 간 약기를 집어 들어 노래를 부른다.
페리클레스가 노래 부르는 것을 사이머니디스가 지켜본다.

페리클레스 (노래)
 빛나간 사랑
 가뻐던 마음도 무겁게 짓눌러-
 그대 근심으로 멈춰진 마음

 사랑은 한숨으로 일으켜지는 연기-
 사라지며 연인의 눈 속에서 빛나는 불꽃-
 타오르며 연인의 눈물에서 넘치는 바다-
 그대 근심으로 흘러가는 마음

 사랑은 마실 수 없는 쓰디 쓴 독약-

2막 4장

사이머니디스가 타이어의 편지를 읽고 있다.

사이머니디스 허허..., 앞으로 열두 달 동안 결혼을 하지 않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딸의 편지를 마저 읽어 보아야겠다.
뭐라, 그 이방인 기사와 결혼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낮의 해를 보지 않겠다.
잘 생각했다, 공주야 아주 마음에 들어.
아니지, 내 생각은 묻지도 않고 이렇게 확고하게 결정을 해버리다니!
어쨌거나, 딸 아이의 선택이 내 마음에도 꼭 드니 지체 말고 실행해야겠다.
가만 마침 오는군. 일단은 모르는 척 해야지!

페리클레스 전하에게 모든 행운이 깃드시길 빕니다!

사이머니디스 그대에게도 지난 밤 노래는 아주 훌륭했소
경쾌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악에 내 귀가 다시없는 호강을 했소

페리클레스 과찬이십니다, 전하.

사이머니디스 음악에 있어선 대가 선생이시더군.

페리클레스 가장 부족한 학생일 뿐입니다.

사이머니디스 내 하나 묻지.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니?

페리클레스 모든 미덕을 갖추신 공주님이십니다.

사이머니디스 그리고 얼굴도 예쁘지, 그렇지?

페리클레스 눈부신 여름날처럼, 경이롭고 아름다우십니다.

사이머니디스 내 딸이 그대를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소
사실, 너무 좋아해서 말인데, 그대가 내 딸의 선생이 되어야겠소
내 딸이 그대의 학생이 될 것이란 말이오 그런 줄 알고 있으시오

페리클레스 저는 공주님의 선생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이머니디스 그 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 이 편지를 잘 읽어 보시오

페리클레스 (방백) 이게 뭐자? 편지, 타이어의 기사를 사랑한다고
안티오크의 악몽이다!
이건 나를 죽이려는 왕의 음모야!

³ ‘로미오와 줄리엣(1막1장)’ 중에서 로미오 대사 변용.

부디,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방인이며,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일 뿐입니다.
감히 따님을 사랑하겠다는 야심은 품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온 마음으로 존경했을 뿐입니다.

사이머니디스 내 딸을 가지고 놀았구나. 나쁜 놈

페리클레스 아닙니다. 공주님의 사랑을 얻으려는 생각도 행동도 절대 한 적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사이머니디스 거짓말, 이것은 배신이다!

페리클레스 배신이라니요?

사이머니디스 그래, 넌 나를 배신했다.

페리클레스 누군지 몰라도 전하만 아니라면, 그 자의 목구멍 속에 그 거짓말을 도로 쑤셔 넣겠습니
다.

사이머니디스 (방백) 배짱이 좋군. 마음에 들어.

페리클레스 제 행동은 제 생각처럼 진실합니다.
천한 생각은 장난으로라도 품어본 적 없습니다.
이 궁정에 온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이지, 배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는 명예의 적임을 이 칼로 증명할 것입니다.

사이머니디스 아니다? 저기 내 딸이 온다. 그 애가 밝혀 주겠지.

타이자 등장

페리클레스 공주님, 아버님께서 화를 푸시도록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제 허가 단 한 마디라도 당신께 사랑을 속삭이거나,
이 손이 사랑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까?

타이자 왜요? 기사님? 그렇다면 내가 기뻐했을텐데 누가 뭐라나요?

사이머니디스 너는 어찌 그렇게 제 멋대로냐?

(방백) 그래서 내 맘에 쏙 든다만 - 혼이 좀 나아졌구나.

(타이자에게) 내 허락도 없이 저 이방인에게 네 사랑과 애정을 바치겠다는 거냐?

(방백) 물론 저지는 웬지 나만큼이나 훌륭한 혈통일 거라는 확신이 들지만 -

(타이자에게) 그러니, 넌 내 뜻을 따라라. 그리고, 자네도 네 명령에 복종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 부부로 만들겠다!
아니, 뭐하고 서있냐? 손을 잡고 입을 맞추어서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니, 희망이 생겼잖아?
이제 그 희망을 산산이 부수어 주고 더욱 슬프게 해주겠다! -
잘 살아라! - 뭐야! 둘 다 좋기는 한 것이냐?

타이자: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요.

페리클레스: 내 생명처럼, 아니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피처럼 사랑합니다.

사이머니다스: 뭐냐? 둘이 합의를 본 것이냐?

페리클레스와 타이자: 예, 전하께서 기뻐하신다면

사이머니다스: 서둘러 식을 올리고 빨리 신방을 차려.

3막

가우어5(낮은 모리):
풍악소리 찾아들고 달빛은 교묘한데
만취한 하객들은 깊은 잠에 들었거날
혈기방장 페리클과 만화방창 타이자가
단들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나
그 날밤 정답이야 말로도 전할 수 없고
글도 소용 없는지라. 그림자극으로 표현한다.

가우어5(중중 모리):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아
사랑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히히이 내 사랑이로다 이때도 내 사랑아

가우어5(낮은 모리):
어허 이리와 어서 벗어라, 잠자자 어서 벗어라
혈기방장 페리클이 외락 뛰어 달려드어
싸나운 솟말 암말 덮치듯 양각을 취해놓니
만화방창 타이자가 외락 들어 받아놓니
비개는 위로 솟구치고 이불은 벗겨지고
침대는 삐걱삐걱 때아닌 풍량이 일어난다.

장소 펜타폴리스
* 인형/그림자극

가우어5(아니리):
그 때여 안티오크에서는 천양공노할 근친상간을 범한 안티오크스와 그 딸이
하늘의 화살 벼락을 천벌로 맞아 비명횡사했는데
벼락을 그냥 맞은 것이 아니고 쫓아가서 맞았다고 하더라.
이에 지붕없는 집처럼 불안하였던 타이어의 백성들
자기네 왕 페리클레스 행방을 사방으로 찾았으나 간 곳을 모르는지라,
충신 헬리카누스 머리에 왕관을 씌우려 했으나
신하 된 자 도리 내세우며 단호히 거부하거날
열두달 내로 페리클레스를 찾아내되
만일 못찾으면 헬리카누스를 추대하기로 약속하였것다.

가우어5(중중모리):
헬리카누스의 충심이 바다의 신 마음을 움직였는지
만리 떨어진 고향의 서한이 페리클레스에게 당도하니
페리클레스가 왕이었던 사실, 펜타폴리스에 알려지고
자기네 왕이 살아있단 사실, 본국 백성들에게 알려지니
모두들 즐거워 날뛰며 어쩔 줄 모르는구나
페리클레스 기뻐하며 임신한 왕비 타이자와 함께
오매불망 고향 땅 타이어를 향하여 망명대해로 나서는데
앗불사 이게 웬일이냐
또다시 사나운 폭풍이 풍량을 일으킨다
홍진비래라더니 기쁨이 과하니 화가 오려는가
아이를 가진 왕비가 비명을 토해내니
애통하구나
풍량으로 맺어준 인연 풍량으로 끊으려는가.

3막 1장

페리클레스 이 끝 없는 바다의 신이여, 파도를 좀 꾸짖어 주십시오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여, 바람을 좀 묶어 주십시오
귀를 찢는 찬동아, 부디 조용히 해라.
유황불 타고르는 번개를 잠잠하게 해다오
아, 리코리다, 왕비는 어떠신가?
독기를 품은 듯 휘몰아치는 구나. 네 모든 것을 다 쏟아 낼 참이나?
들리지 않는가, 리코리다! -
오, 출산의 여신이여, 밤에 울부짖는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이여,
부디 이 미친 듯 춤추는 배에 타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왕비의 출산의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리코리다가 아기를 안고 등장

리코리다: 이렇게 어린 분은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자, 품에 잘 안으세요. 돌아가신 왕비님의 단 하나 남은 조각입니다.

페리클레스 뭐, 뭐라고, 리코리다?

리코리다: 진정하세요. 왕비께서 남기신 생명은 이게 전부예요.
이 작은 딸을 보세요. 공주님을 위해 부디 남자답게, 힘을 내세요.

페리클레스 신이여! 선물을 주어 사랑하게 해 놓고 도로 빼앗아 가다니요!
인간도 준 것을 도로 빼앗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인간보다 낫은 게 뭡니까!

리코리다: 참으세요, 전하. 아기씨를 생각하셔야죠. (페리클레스에게 아기를 안긴다)

페리클레스 부디, 너의 삶이 순탄하기를. 평화롭고 온화한 삶이 되길!
왕의 아이로 태어나면서 너보다 더 지독한 환영을 받은 이는 없을 거다.
앞으로는 부디 행복만 있기를!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네가 잃은 것을 그 무엇이 보상에 줄 수 있겠니.
부디 선한 신들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펜타폴리스의 선장과 선원 등장 * 선장과 선원 등은 광대들이 맡는다.

선장: 전하, 왕비님 시신을 수장해야 합니다.
바다가 미친 듯 날뿔 때는 배에서 시신을 당장 치워야 합니다.

페리클레스 그건 미신일 뿐이야.

선장: 용서하십시오. 우리 뱃놈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습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서 왕비님 시신을 넘겨주십시오.
당장 배 밖으로 모셔야 합니다.

페리클레스 너희들이 옳다고 믿는 데로 하거라. 오, 가엾은 왕비!

선원들 왕비의 시신을 옮겨온다.

선원: 갑판 아래 함이 하나 있는데 물이 세지 않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리클레스 고맙네. (선장에게) 선장, 여기가 어디 근처인가?

선장: 타서스 부근입니다.

페리클레스 그곳으로 가자. 타이어 대신 타서스로 배를 돌려라. 언제쯤 도착하겠는가?

선장: 바람만 잦아들면 동틀 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 타서스로 가자. 거기서 클레온에게 아기를 맡기자.
잘 보살펴 줄 것이다. 아기는 타이어까지 버틸 수 없을 거다.

선장은 한쪽 문으로, 선원은 갑판 밑으로 퇴장.

페리클레스 리코리다, 향파 먹, 종이, 보석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 비단 상자도
(리코리다에게 아기를 준다) 아기를 데리고 가라. 나는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겠다.

리코리다 퇴장

페리클레스 당신, 너무 끔찍한 출산을 겪었소, 내 사랑. 빛도 온기도 없이.
무심한 자연이 당신을 완전히 잊어 버렸어.
나 역시 당신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곤장, 흙탕물에 던지오
비석도 등불도 없이, 웅웅대는 물만 그대의 시신을 감싸고,
무심한 조개만 당신 곁에 누울 텐데.

3막 2장

가우어(진양조): 애통해라 페리클레스 -
한번 가면 다시 못 올 구천의 길, 타이자 떠나 보내고
겨우 얻은 아기 품에 안고 타서스에 당도한다.

장소 타서스

타서스에 도착한 페리클레스, 클레온, 다이오니자와 함께 등장. 리코리다가 아기를 안고서 뒤따른다.

* 가우어는 바로 옆에서 다음의 대사를 듣고 있을 수 있다.

페리클레스 클레온, 저는 가야 합니다. 제게 주어졌던 열두 달이 다 되어,
타이어의 평화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분께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클레온 전하가 당하신 불행에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이오니자: 왕비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페리클레스 신들께 순종하는 수 밖에요.
제가 아내가 문헌 바다처럼 분노하고 울부짖는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제 딸 마리나, 바다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부디 잘 키워주십시오. 공주답게 교양을 갖춘 아이로 교육시켜 주십시오.

클레온: 걱정 마십시오. 굶주림에서 구해주신 전하의 자비심을

백성들은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공주님을 소홀히 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한 신들께서 저뿐 아니라 제 가족 모두를 대대손손 벌하실 겁니다.

페리클레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명예와 선한 마음을 믿습니다.
저는 순결의 여신 앞에 약속합니다.
이 아이가 결혼하는 날까지, 비록 흉하게 보이겠지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부인께서 제 아이를 잘 길러 주셔서,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이오나자: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와 똑같이 키우겠습니다.

페리클레스 감사합니다.
리코리다, 울지 마세요. 어린 공주를 잘 부탁한다.

가우어 외 모두 퇴장

3막 3장

장소 에페수스
* 인형그림자극

가우어(중머리): 한편, 선장 직언대로 바다에 맡긴 타이자의 함은
파도따라 출렁 출렁 몇 날을 표류하다
어느 해안에 도착하니 그 곳은 에페수스라
사람들이 기이하여 가까이 가서 보니
꽃 같은 함이 놓였거날
사람들이 겁을 내어 벌벌벌 떨면서 뚜껑을 열어본즉
향취가 진동하고 오색 채운이 어리더니
어떠한 여인이 누웠거날 창백한 모습이라
영험한 세리몬의 손길이 여인에게 닿으니
타이자의 낮빛에 핏기가 돌더니
목숨의 불꽃 다시 피어나 따뜻한 숨결 뱉어내는구나
생사의 고비를 넘은 타이자, 페리클레스를 찾으나
타서스는 먼 타국 땅인지라
아무리 기쁜 소식이 날개를 달아도
그를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세리몬과 타이자 등장

세리몬: 부인, 이 편지와 보석들이 관 속에 있었습니다. 글씨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타이자: 남편 겁니다. 배에 탄 것은 기억이 납니다. 진통이 온 것도요,
하지만 아기를 낳았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나의 남편, 페리클레스 왕을 다시는 못 만날 테니,
저는 수절을 하고, 이제는 즐거움과는 상관없이 살겠어요.

세리몬: 부인, 그렇다면, 멀지 않은 곳에 순결의 여신 다이애나 신전이 있으니,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 조카 딸 아이가 부인의 시중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하디는 말뿐입니다.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마음만은 크답니다.

세리몬과 타이자 퇴장.

4막

가우어7: 어즈버, 페리클레스는 본국 타이어에 -
왕비 타이자는 다이애나 신전 역사제 되어 에페수스에 -
아, 이런 생사이별보다 못한 이별 또 어디 있을까?

장소 타서스
* 인형/그림자극

가우어7: 허나, 시간은 무정세월(無情歲月), 살처럼 흘러
부모 모르는 마리나, 꽃다운 열네 살이 되어
왕족다운 교양은 물론 하늘의 노래로 시를 지으니
경탄을 멈추는 자가 없더라.

오직 한 사람, 다이오니자 - 그녀에게도 딸이 있었으나
청산유수 옥필로 시를 지어 노래하는 마리나와 겨룰수록
그녀의 딸 재주는 발치에도 못 미치니
질투심은 하늘을 찌르고 다이오니자 마음도 찌르는구나
끝내, 그 마음에 가시가 돌아 마리나 살해 흉계를 칼처럼 품는구나

아, 흉계를 부채질하는 음모의 기회여 -
유모 리코리다 저승 가고 마리나 홀로 남으니
그 순결한 영혼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마음에 칼을 품은 다이오니자가
손에 칼을 든 레오나인과 계책을 꾸미네

4막1장

다이오니자와 레오나인 등장.

다이오니자: 조금 있으면 리코리다의 무덤으로 마리나가 올거다.
그냥 칼 한 번 휘두르면 끝인 거야.
이렇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것 같아?
양심도, 그 애에 대한 연민도, 동정심도 가져서는 안돼.
군인처럼 네 목적만 생각하는 거야.

레오나인: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여자인데.

다이오니자: 그러니까, 더 빨리 신들이 데리고 가야하지.
저기 온다. 죽은 유모 때문에 울고 있구나.
너, 결심은 선 거지?

레오나인: 예.

마리나, 꽃바구니를 들고 등장. 리코리다 무덤 앞

마리나: (노래)
 그곳에도 꽃이 피나요?
 여기에는 노란 꽃 파란 꽃 시드는 금잔화⁴.
 그곳에도 바람 부나요?
 여기에는 실바람 눈바람 거센 폭풍우.

그치는 날 없이 부는 바람
 세상은 날 두고 부는 폭풍
 어디에 있나요? 날 여기 혼자 두고
 언제쯤 오나요? 우리 다시 만날 날

다이오니자: 무슨 일이니, 마리나! 유모는 이제 없어.
 그렇게 슬퍼하면 몸이 상한다. 봐라, 안색이 좋지 않구나. 기운 내렴.
 내가 너의 유모가 되어주잖니. 자, 꽃은 내게 주고 바다 바람에 시들겠다.
 레오나인과 산책을 좀 해라. 공기가 상쾌해서 기운도 북돋아 주고,
 입맛도 돌아오게 해줄 거다. 자, 레오나인, 아가씨를 모셔라.

마리나: 아니에요. 그럼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하인도 없어요.

다이오니자: 이런, 이런. 너와 네 아버지는 나에게 식구나 다름없어.
 오늘이라도 당장 너의 아버지가 오실 지도 모르는데,
 타서스의 자랑인 내가 이렇게 시들어있는 걸 보시면 우리 부부를 책망하지 않겠니.
 너를 잘 돌보지 못했다고 말이야.
 자, 부탁이다. 산책 좀 하고, 다시 기운을 차리거라.
 젊은이나 늙은이나 냇을 잃고 쳐다보는 그 예쁜 얼굴을 되찾아야지.
 내 걱정 말고, 난 혼자 갈 수 있어.

마리나: 정 그러시면 갈게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다이오니자: 자, 어서.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적어도 반 시간은 걷도록 해,
 레오나인, 내 말 명심하고,

레오나인: 예, 마님.

다이오니자: 조금 있다 보자.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마리나: 고맙습니다. (다이오니자 퇴장) 지금 부는 바람이 서풍인가요?

레오나인: 남서풍입니다.

마리나: 내가 태어날 때, 북풍이 불었다고요.

레오나인: 그래요?

마리나: 유모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대요.
 선원들에게 “힘 내라!” 소리치시면서, 당신 손으로 직접 밧줄을 당기셨대요.
 갑판을 깨뜨릴 것 같은 파도를 건디면서 돛대를 꼭 잡고 버티셨대요.

⁴ 꽃말: 안내, 겸손

레오나인: 그게 언제였어요?

마리나: 내가 태어날 때요, 파도랑 바람이 그렇게 사나울 수 없었대요.
선원 하나가 사다리를 올라갔다 쓸러가고,
다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통 이수라장이었대요.

레오나인: 자, 이제 기도나 하세요.

마리나: 무슨 말이에요?

레오나인: 기도하라구. 질질 끌지는 마. 얼른 끝내고 싶으니까.

마리나: 왜 날 죽이려는 거예요?

레오나인: 마님 명령이니까.

마리나: 왜 나를 죽이고 싶어 하세요? 전 단 한 번도 그분께 상처 드린 적도 없고,
이 세상 누구에게도 나쁜 말 한 마디,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어요.
제가 어쨌길래, 제가 죽어야 그분께 유익이 되고, 살아있으면 위험이 되나요?

레오나인: 설명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난 그저 널 죽이면 돼.

마리나: 안 그러실 거죠, 그렇죠? 착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 싸움을 말리다가 다치신 거 본 적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와 제 사이에서 약자인 저를 지켜주세요.

레오나인: (칼을 뽑으며) 이미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야. (마리나를 잡는다)

해적들 등장: * 해적들은 광대들이 이 말한다.

해적1: 썩썩 마라, 이놈!

레오나인 도망친다

해적2: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해적3: 반반씩 나눠 먹기다. 야, 반반씩! 빨리 배에 태우자!

해적들, 마리나를 데리고 퇴장. 레오나인 다시 몰래 들어온다.

레오나인: 저 빌어먹을 해적들! 아니야, 그냥 두자. 절대 못 돌아올 거야.
죽여서 바다에 내던졌다고 하자. 아니, 잠깐 기다려보자.
놈들이 재미만 보고, 배에는 안 태울 수가 있으니까.
강간 당하고 돌아오면, 내가 죽여서 끝내버려야지.

4막 2장

장소 미틸레네

매음굴 주인들인 판다와 뚜쟁이 그리고 하인 볼트 등장. 주위에 매춘부들이 서있다.

* 판다, 뚜쟁이, 볼트, 매춘부들은 광대들이 맡는다.

판다: 볼트

볼트: 예?

판다: 장터를 살살이 훑어봐 미틸레네에 쟤고 쟤 게 한량인데 이번 대목엔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 계집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상한 걸로 하나 사자고 돈을 좀 주더라도 이것도 장산데, 양심적으로 해야 번창하지.

뚜쟁이: 맞는 말이야.

볼트: 그럼 장터를 뒤져볼까요?

뚜쟁이: 딴 수 있어? 우리 것들은 바람만 불어도 찢어질 정도로 문드러져 있는데.

판다: 사실이야. 양심적으로 말해서, 완전 썩었어. 트란실바니아에서 왔던 그 불쌍한 놈, 꼬마 갈보하고 자고 바로 죽었잖아.

볼트: 맞아요. 그년 참 사람을 완전 구더기 밥을 만들어 놔으니. 그럼, 장터나 뒤져보러 가겠습니다. (퇴장)

판다: 금화 삼, 사천만 있으면, 이 짓 당장 때려치우고 조용히 살 수 있을 텐데.

뚜쟁이: 왜 때려 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돈 벌면 어디 덧나?

판다: 막말로, 우리 일이 돈만 버는 일이야? 욕도 같이 벌지. 이 짓은 신들도 싫어하는 짓인데 할 수만 있으면 때려치워야지.

뚜쟁이: 뭐 딴 놈들은 별 수 있나? 다 우리 같이 신을 욕보이면서 사는 거야.

판다: 우리 같아? 우리는 좀 심하지. 이 짓은 장사도 천직도 아니야.

볼트, 마리아를 데리고 해적들과 함께 등장. * 해적들은 광대들이 맡는다.

볼트: (해적들에게) 정말 처녀 맞지?

해적1: 아, 그렇다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야.

볼트: (판다에게) 니리, 이 년을 사기로 했습니다.

해적2: 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길 수 있을까?

볼트: 그거야 재 엄마가 예쁘니까 그렇지.

해적2: 그럼 그 엄마는 왜 그렇게 이쁠까?

볼트: 엄마의 엄마가 이빠서 그렇지.

뚜쟁이: 무슨 재주라도 좀 있냐?

볼트: 얼굴 곱잖다, 말 잘하고, 옷도 근사하잖습니까.

뚜쟁이: 얼마야?

해적2: 천에서 한 푼도 못 깎습니다.

판다: 그럼, 돈을 내 줘야겠구만 (해적들에게) 따라와.
(뚜쟁이에게) 데리고 들어가서 단단히 가르쳐. 손님 맞을 때 뻗뻗하게 굴지 않게.

판다와 해적들 퇴장

뚜쟁이: 볼트, 너는 가서 재 머리 색깔, 얼굴, 키, 나이 죄다 떠들고 다녀. 특히 처녀라는 걸 강조해. 그러면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첫 번째 손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란 말이야. 사내놈들은 저런 애라면 돈은 얼마든지 낸단 말이야.

볼트: 분부대로 합지요 (퇴장)

마리나: 레오나인이 너무 시간을 끌었어. 날 바로 죽였더라면 해적들도 더 잔인했어야 해. 차라리 날 배 밖으로 던져 버렸다면 엄마라도 찾아갈 텐데.

뚜쟁이: 왜 우니, 이쁜이?

마리나: 예뻐서 울어요.

뚜쟁이: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찌니.

마리나: 신들을 탓하진 않아요.

뚜쟁이: 넌 이제 내 손 안에 있으니, 여기서 살아야 해.

마리나: 내 잘못이야. 피하는 게 아니었어. 그 사람 손에 죽었어야 했어.

뚜쟁이: 죽긴 왜 죽어. 이제 재미나게 즐기면서 살게 될 텐데.

마리나: 아뇨.

뚜쟁이: 그렇게 돼. 온갖 종류의 남자들 맞을 다 보게 될 거야. 아주 재미있어. 검둥이, 흰둥이, 노랑이 골고루 다 가져 보는 거지. 아니, 귀는 왜 쳐 틀어 막아?

마리나: 당신 여자 맞아요?

뚜쟁이: 내가 여자가 아니면 뭐야?

마리나: 정숙한 여자가 아니면 여자가 아니죠.

뚜쟁아: 이런 엄병할 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 햇병아리 등신아!
넌 내가 앞서지라면 앞서지는 거야!

마리나: 신들이여, 저를 지켜주세요!

뚜쟁아: 신들이 사내 놈들 시켜서 지켜주실 거다.
사내들이 널 위로해 주고, 먹여주고, 못 참도록 흥분도 시켜주고!

볼트 등장

뚜쟁아: 볼트 반응이 어때? 특히 젊은 애들.

볼트: 참말이지, 저 아버지 유언 들듯 열심히 듣더라고요.
한 스페인 놈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체를 못하다가 급하게 뒷간으로 달려가고...

뚜쟁아: 그 놈 내일이면 아주 짝 차려 입고 나타나겠군.

볼트: 오늘 밤 당장이요, 오늘 밤.
그리고, 그 가랑이 쪼그리고 다니는 프랑스 기사 아시죠?
그 양반은 내 말만 듣고도 끄끙 앓더니 내일 당장 보러 오겠습니다.

뚜쟁아: 근데, 그 양반이 우리 집에 몹쓸 병을 퍼뜨렸잖아.
하여간 프랑스애들은, 내일 와서 햇빛처럼 금화를 뿌려대면 우리 집이 환해지겠지.

볼트: 세상 어느 나라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이 간판이면 우리 집에서 자려고 할 걸요.

뚜쟁아: (마리나에게) 너 이리 와봐. 넌 이제 대박 나게 생겼어.
잘 들어. 그 짓을 할 때는 무섭고 싫은 척 해야 한다.
사실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면 더더욱 싫은 척 하고
사는 게 서럽다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 손님들이 너를 불쌍하게 보거든.
동정을 사면 인기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야.

마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볼트: (뚜쟁아에게) 그냥 한 번 제대로 당하게 하세요.
지금이야 얼굴이 빨개지지, 몇 번 진짜 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잖아요.

뚜쟁아: 네 말이 맞다. 신부들도 첫날 밤에는 일부러 부끄러운 척 하니까.

볼트: 어쨌든 마님, 제가 이번에 한 몫 했으니까...

뚜쟁아: 자네도 한 번하게 해줄게.

볼트: 꼭 अपना.

뚜쟁아: 당연하지. (마리나에게) 애 나 좀 봐. 네 옷은 일단 마음에 든다.
볼트 시내에 가서 이 돈 써. 애 소문을 퍼뜨리란 말이야. 손님들 많이 끌어드려야지.
애가 천하미색이라고 떠들고 다니란 말이야.
네가 떠들고 다니는 만큼 너도 수확이 있을 거야.

볼트: 마님, 염려 붙들어 매십쇼 내가 떠들고 다니면
 동네 색골들이 천둥소리에 갯바닥 뱀장어 일어나듯 벌떡벌떡 일어설 테니까.
 오늘 밤 당장 몇 놈 붙들어 오겠습니다. (퇴장)

뚜쟁이: 너, 따라와.

마리나: 불이 뜨겁고 칼이 날카롭고 바다가 깊은 한
 나는 내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어. 순결의 여신이며, 절 도와주세요.

뚜쟁이: 여기서 순결의 여신을 왜 찾아 빨리 못 와?

모두 퇴장

4막 3장

장소 타서스
클레온과 다이오니자 등장.

클레온: 오, 다이오니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게 마리나를 죽일 수 있신

다이오니자: 자꾸 어린애 같은 말쑼 하실래요

클레온: 당신은 살인자 레오나인마저 독살했지.
 당신도 그 독배를 마셨다면 차라리 고마웠을 텐데.
 페리클레스가 딸을 찾아오면 뭐라고 할 거요?

다이오니자: 양부모는 운명의 여신이 아니에요.
 길러줄 수는 있어도 죽고 사는 것까지는 어찌지 못해요.
 당신만 순진한 척 하면서 털어놓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클레온: 그만! 하늘 아래 수만 가지 죄가 있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악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요.

다이오니자: 겁쟁이! 페리클레스가 알까 봐 전전긍긍하는 군요!

클레온: 내가 당신이 저지른 일을 용인한다면,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요.

다이오니자: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만 입 다물면 그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마리나 때문에 우리 딸은 단 한 번도 기를 펴고 살지 못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천덕꾸러기처럼 조롱만 당했어요.
 그게 내 이 가슴에 사무쳐 있다구요.
 당신은 내가 천벌 받을 거라고 하지만
 나만큼 우리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클레온: 오, 하늘이시여!

다이오니자: 페리클레스도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완벽하게 장례식도 치러주었고,
반쪽거리는 금 글씨로 세상사람들의 칭찬과 우리의 사랑을 비문에 새겨 넣어 주었어요.
엄청난 돈이 들었죠.

클레온: 당신은 괴물이야.

다이오니자: 당신은 겨울에 파리가 죽었다고 신에게 대드는 바보 같아요.
하지만, 전 알아요. 당신 결국엔 내 말대로 할 거라는 걸.

클레온과 다이오니자 퇴장하면, 가우어 이어서

가우어8: 그러나 운명의 계략 모르는 페리클레스 -
왕 된 도리 다 한 후에 그리운 마리나 찾아 나서네

* 인형/그림자극

가우어8: 때마침 순풍은 페리클레스를 타서스로 모셨으나,
오호통재! 딸 맡긴 그 자리 남은 건 무덤뿐이로구나

보라, 운명도 눈 가리고 진실도 고개 떨구는 것을 -
비통의 해일이 페리클레스를 덮쳐 눈물로 쏟아지는구나

(Prologue와 겹치며)

아이, 바람아 불어라! 천둥아 울어라!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어도
페리클레스 눈물 가릴 수 없으리 -

아이, 운명아 들어라!
폭풍우 앞에 선 페리클레스의 절규 들어라!

그러나 그 순간 빈 무덤의 주인공 마리나는
미틸레네에서 또 다른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페리클레스의 절망을 뒤로하고
마리나를 찾아 미틸레네의 매음굴로 몸을 숙여 들어가 봅시다.

4막 4장

장소 미틸레네

미틸레네 신사들 등장 * 신사들은 광대들이 말한다.

신사1: 자네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신사2: 아니, 저 아카씨가 아니면 이런 데서 절대 들을 일이 없는 말이지.

신사3: 아, 이런 데서 그런 귀한 이야기를 듣다니. 어디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어?

신사1: 절대 아니지. 난 다시는 창녀를 찾지 않을 거야
신사2: 우리, 말 나온 김에, 여 사제들의 찬송이나 들으러 갈까?
신사3: 난 이제 착한 일만 할 거야. 절대 오입질은 하지 않을 거야.

신사들 퇴장. 뚜쟁이, 판다, 볼트 등장

판다: (퇴장하는 신사들을 이쉽게 보며)
차라리 저년이 안 왔으면, 저년 값의 두 배는 벌었을 텐데.
뚜쟁이: 망할 년! 오는 손님마다 성스럽게 교화를 해서 보내니 어쩔 거야!
섹스의 신도 저년 앞에서는 얼어 붙을 걸 생육번성을 멈추게 할 년
그년을 확 겁탈해버리거나 쫓아 버리거나 해야지.
손님한테 우리 직업에 맞게 봉사를 해야지, 따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악마도 재한테 뽀뽀 한 번 하려다가 청교도가 될 지경이니.
볼트: 내가 확 한 번 박초 이러다간 재 때문에 손님 다 떨어지고,
건달들은 다 사제가 될 거라구요.
판다: 확 매독에나 걸러버려라!
뚜쟁이: 진짜 매독밖에는 방법이 없을 지도 몰라.

리시마커스 등장

뚜쟁이: 리시마커스 나리다. 변장을 하셨네.
리시마커스: 잘 있었나? 숫치녀 열두 명이면 얼마 주면 되나?
뚜쟁이: 나리, 잘 지내셨어요?
볼트: 건강하신 걸 보니 기쁩니다.
리시마커스: 그렇겠지. 손님들이 두 다리로 멀쩡히 잘 서있어야 자네들도 좋지.
근데, 좋은 물건 하나 있나? 데리고 놀만 하고, 의사 신세도 지게 하지 않을 것으로
뚜쟁이: 있기가 있지요, 개가 단지-, 그런 애는 미틸레네에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리시마커스: 뭐, 개가 밤 일만 한다면 말이야?
뚜쟁이: 바로 그거죠.
리시마커스: 일단 데려 와봐. 데려 와봐.

뚜쟁이 퇴장

볼트: 피부며 혈색이, 그러니까, 뽀얗고 밝으래 하고, 딱 장미 같습니다.
완전 장미죠, 단지 개가...

리시마커스 단지, 뭐?
볼트 차마 제 입으로..
리시마커스 뚜쟁이가 체면을 차린다

뚜쟁이가 마리나를 데리고 등장

뚜쟁아: 여기 왔어요.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는 꽃이랍니다.
아직 아무도 손 대지 않은 꽃이죠. 참 예쁘죠?
리시마커스 너 하나를 보려고 먼 바다를 여행해 와도 그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자, 이거 받고 물러가라.
뚜쟁아: 저, 한 마디만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짧게.
리시마커스 그러게.
뚜쟁아: (마리나에게) 우선 잘 알아둬라. 저 분은 아주 고귀하신 어른이다.
마리나: 정말로 고귀한 분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분이로써 존경할 수 있겠어요.
뚜쟁아: 다음으로는, 이 분은 이 나라 총독이시다. 내 목숨 줄을 쥐고 계신단 말이야.
마리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니 그렇겠군요.
그치만 그 일을 얼마나 명예롭게 하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뚜쟁아: 제발 부탁이다. 순결 타령 그만하고, 잘 모셔.
네 치마에 금테를 돌려주실 분이야.
마리나: 신사답게 주시는 거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요.
리시마커스 (뚜쟁이에게) 다 끝났나?
뚜쟁아: 나리, 애가 아직 길이 안 들었어요. 말 듣게 하려면 애 좀 쓰셔야 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물러갑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판다, 뚜쟁이, 볼트 퇴장.

리시마커스 자, 이쁜아, 이 일 한 지는 얼마나 됐나?
마리나: 무슨 일이요?
리시마커스 내 입으로 말 할 순 없잖니. 네가 창피할 테니까.
마리나: 전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리시마커스 얼마나 오래 했냐고 - 이 일을.

마리나: 제게 기억이 있는 그 전부ですよ.

리시마커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섯 살, 일곱 살부터 놀았던 말이야?

마리나: 그 전에, 한 살 때도 놀았겠죠.

리시마커스: 네가 지금 이 집에 있다는 건 네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야?

마리나: 이 집이 그런 데라는 걸 알면서도 오신 거예요?
고귀하신 분이요, 이 나라의 총독이라는 분이요?

리시마커스: 네 주인이 내가 누구인지 말 했구나?

마리나: 누가 제 주인인가요?

리시마커스: 네 밭 가는 여자 아니야. 너에게 치욕의 씨를 뿌리고, 죄의 뿌리를 심는 여자.
아, 내가 힘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콧대 높은 척 하면서 내가 좀 더 너한테 구애하기를 바라나 본데,
이쁜아, 꿈 깨라. 자, 방으로 가자. 어서, 어서.

마리나: 명망 높은 가문에 태어나셨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세요.
노력해서 명예를 얻으셨다면,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옳다는 걸 보여주세요.

리시마커스: 이진 뭐야? 제법 뭘 아는 아이 같이 말을 하네.

마리나: 저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운명이 가혹하게도 이런 돼지 우리 같은 곳에 저를 던져 놓았을 뿐이에요.
이곳에선 약보다 질병이 더 값비싸게 팔리죠.
오, 신들이 이 더러운 곳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길
(노래)
날 보잘것없는
하찮은 새로 만드신다 해도
저 깨끗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리시마커스: 네가 그런 말을 할 줄 알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꿈도 못 꿰어. 내가 여기 올 때는 타락한 마음으로 왔지만
너의 말이 나를 고쳐주었다. 여기, 이 금화 받아라.
네가 가고 있는 그 깨끗한 길을 계속해서 가거라. 신들이 너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

마리나: 당신께도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리시마커스: 제발,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젠 이 문, 이 창문, 모두 구역질이 난다.
잘 있어라. 너는 순결 그 자체이다. 귀한 집안에서 자라난 것이 틀림없어.
잠깐, 금화를 좀 더 받아라. 누구든 너의 고결함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도둑놈에 걸맞게 죽여버리겠다.
다시 연락하라. 네가 기뻐할 일로 말이다.

볼트가 다시 등장한다.

볼트: 나리, 저도 한 낚..
리시마커스: 비켜. 더러운 문지기 자식. 저 소녀만 아니었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볼트: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래도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안되겠어.
니 그 지랄 맞은 순결이라는 거, 세상에 다시 없이 배꼽는 나라에서도
아침 한끼만한 가치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걸로 가게를 통째로 말아먹으려 들어?
차라리 내 좃을 자르지. 자, 이리 와.
마리나: 날 어떻게 하려고요?
볼트: 네 처녀막을 찢어주려고 그런다. 아니면 아무 망나니나 잡아다가 시키랴?
자, 이리 와. 손님 내 좃는 꼴 더 이상은 못 봐. 따라 와.

뚜쟁이가 다시 등장한다.

뚜쟁아: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볼트: 이년 하는 꼴 좀 보십시오. 리시마커스 나리께도 신성한 말로 설교를 했다고요.
뚜쟁아: 징그러운 년!
볼트: 우리 일이 무슨 신 앞에 못할 짓이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뚜쟁아: 목 매달아 죽일 년!
볼트: 그저 신분 높은 남자라면 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리를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서 보내버렸다고요.
뚜쟁아: 볼트, 이년 데리고 가서 네 마음대로 해.
이년 처녀성을 유리 깨듯 깨버려. 그래야 나머지가 말랑말랑해 지지.
볼트: 예, 저 년이 아무리 가서 돈친 발이라고 해도, 제가 잘 갈아 놓겠습니다요.
마리나: 신이여, 신이여, 부디 절 도와주세요.
뚜쟁아: 어디서 신을 불러! 빨리 데리고 가! 차라리 저년이 안 오는 게 나있어!
여자가 갈 길을 가리는데 왜 저 지랄이야! (퇴장)
볼트: 빨리 와! 어서 따라 오라니까!
마리나: 날 어떻게 하려고요?
볼트: 네가 제일 아끼는 보물을 뺏으려고 한다.
마리나: 잠깐만, 하나만 물어 볼게요.
볼트: 하나만 물어 봐라.

마리나: 아저씨는 아저씨 원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볼트: 내 주인 아니면 주인 마님.

마리나: 두 사람 다 아저씨 처지 보다는 나아요. 적어도 아저씨한테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잖아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있는 악마라도 아저씨랑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을 거예요. 창피하니까요. 아저씨는 창녀나 찾아 다니는 하찮은 인간들을 상대하는 문지기니까요. 아저씨는 자기 귀도 자기 게 아니에요. 건달들이 기분 내키면 맘대로 때릴 수 있잖아요. 아저씨가 먹는 음식은 썩은 폐가 토해낸 토사물과 다름없어요.

볼트: 그럼 나더러 어찌란 말이야?

마리나: 아저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빼고 뭐든지 하세요. 쓰레기통을 비우든, 하수구를 치우든, 사형수의 조수로 일하든, 그 뭐라도 지금 아저씨가 하는 일보다는 나아요. 원숭이도 말만 할 줄 알면, 아저씨가 나쁘다고 말할 거예요. 여기, 여기 돈이 있어요. 아저씨 주인이 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거라면, 가서 말해 주세요. 제가 노래도 잘 부르고, 뜨개질, 바느질도 할 줄 알고, 춤도 아주 잘 춰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니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볼트: 정말 그거를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마리나: 만일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날 다시 가두고, 단골 손님 중에 제일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저를 파세요.

볼트: 뭐, 그렇다면, 내가 도울 게 있는 지 한 번 보지 뭐. 적당한 자리를 알아봐 줄게.

마리나: 하지만, 정숙한 부인들이 있는 곳이어야 해요.

볼트: 근데, 내가 정숙한 여자들을 알아야 말이지. 어쨌거나 주인님이랑 마님이 너를 산 거니까, 그분들이 허락을 해야 해. 일단 내가 말쑥을 드러줄게. 둘 다 돈 버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갈 거야. 내가 하는 데 까지는 해 볼 테니까, 가자.

두 사람 퇴장

5막

가우이9: 이리하여 마리아, 더러운 마음굴을 벗어나
여신처럼 춤추며 하늘의 목소리로 노래하니
못사람 마음 폭풍 뒤 빛나는 햇살처럼 순결해지는구나

그 햇살, 페리클레스에게도 비춘 것일까?
바다의 신 축제가 열리는 미틸레네에 페리클레스 발길이 닿으니
아, 고통의 바다에 예를 취하는 그의 눈물에 신들도 감복한 것일까?

리시마커스 영주, 타이어 배를 보고 거룻배를 몰아 영접하니
그가 본 건 바다보다 깊은 페리클레스의 수심이라

5막 1장

리시마커스와 헬리카누스 등장. 미틸레네의 신사들 리시마커스를 따라 등장. * 신사들은 광대들이 맡는다.
헬리카누스 주위로 타이어의 신하들 등장.

리시마커스 안녕하십니까. 해변에서 바다의 신의 영광을 기다다가
이 아름다운 배를 보고 어디에서 온 배인지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헬리카누스 그 전에, 경의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리시마커스 나는 눈 앞에 보이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헬리카누스 이 배는 타이어에서 왔습니다. 타이어의 왕께서 타고 계신데,
왕께서는 석 달 동안 누구에게도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음식도 오직 슬픔을 연장하기 위해 겨우 드실 뿐입니다.

리시마커스 그토록 슬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리카누스 말씀 드리자면 길지만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잃으셨기 때문이지요.

리시마커스 만나 뵈 수 있을까요?

헬리카누스 뵈 수는 있지만 소용 없을 겁니다. 누구와도 말을 앉으시니.

리시마커스 그래도 한 번 뵈게 해주십시오.

헬리카누스 자, 여기 계십니다. (커튼을 열자 페리클레스가 보인다.)
원래는 풍채가 훌륭하신 분이었지요. 하룻밤의 재앙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리시마커스 전하, 안녕하십니까?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하께 인사 올립니다!

헬리카누스 소용 없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미틸레네 신사: 이 곳 미틸레네에 한 처녀가 있는데, 분명히 전하의 말문을 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친구들과 함께 근처 숲에 있을 겁니다.

리시마커스 좋은 생각이에요. 그 소녀라면 전하의 마음을 끌고 귀를 열 수 있을 거요.
누구보다 예쁜 그 얼굴처럼 밝고 명랑한 소녀입니다.
어서 그 소녀를 데려오시오.

리시마커스 신사에게 꺾속말로 명령한다. 신사 퇴장.

헬리카누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왕께서 회복되실 수만 있다면 뭐든지 시도해 봐야지요.
그런데, 친절을 베푸시는 김에 부탁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값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으니, 식량을 좀 주십시오. 아직 남아있긴 한데,
맛이 변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리시마커스 그런 부탁을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왕께서 슬픔에 잠기신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헬리카누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사이 마리나를 데리고 등장.

리시마커스 여기. 내가 말한 그 소녀입니다. 어서 와요, 아름다운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헬리카누스 참으로 기품 있고 당찬 아가씨입니다.

리시마커스 그렇지요.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저의 배필로 더 이상 바랄 것
이 없을 텐데.
여기 고귀한 왕께서 병을 앓고 계신다. 너의 뛰어난 재능으로 이분이 말을 할 수 있게 해
보아라.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말이다.

마리나 예,

리시마커스 : 자, 다들 물러납시다. 신께서 도와주셔서 부디 성공하길 바란다.

모두 물러선다. 마리나 노래한다. 페리클레스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마리나 (노래)
 그곳에도 꽃이 피나요?
 여기에는 노란 꽃 피란 꽃 시드는 금잔화 -
 그곳에도 바람 부나요?
 여기에는 살바람 눈 바람 거센 폭풍우-

 그치는 날 없이 부는 바람
 세상은 날 두고 부는 폭풍
 어디에 있나요? 날 여기 혼자 두고
 언제쯤 오나요? 우리 다시 만날 날

마리나: (페리클레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
전하, 인사 드립니다. 전하, 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페리클레스: 흠, 헤!

마리나: 전하, 제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를 혜성처럼 바라봅니다. 그런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저도 전하와 비슷한 크기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저울로 달아본다면 그 무게가 비슷할 것입니다.
잔인한 운명이 저의 신분을 낮추어 놓았지만
저의 조상들은 위대한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저의 혈통은 지워졌고
저는 세파와 불행한 사건들의 노예로 묶여있습니다.
(방백) 그만 포기할까 봐. 하지만, 꺾기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아. ‘이 분이 말을 할때 까지 떠나지 말아라.’

페리클레스: 운명 - 혈통 - 나와 비슷한 크기의 슬픔! 그러나? 그렇게 말 했느냐?

마리나: 예.

페리클레스: 누구와 닮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곳 출신이냐?

마리나: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 출신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요.

페리클레스: 아내를 닮았어. 딸이 살아 있다면 꼭 이렇겠지.
눈동자, 목소리, 똑 같구나. 어디 살고 있느냐?

마리나: 이곳 미틸레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페리클레스: 자라난 곳은 어디냐? 어디서 그 귀한 재주들을 배웠느냐?

마리나: 제 과거를 말씀 드려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페리클레스: 말해봐라. 너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다.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으며.
정말 닮았어. 친지들은 없느냐? 네 출생에 대해 말해 보아라.
너의 슬픔이 내 슬픔과 같은 무게일 거라고 했자?

마리나: 조금의 거짓도 없이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 드렸어요.

페리클레스: 만일 네가 겪은 아픔이 내 아픔의 천 분의 일만 되어도
너는 사내이고 나는 여자 아이처럼 산 셈이다.
그런데, 너는 고요한 인내의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구나.
그 어떤 아픔도 멈추게 하는구나. 친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찌다가 헤어지게 되었나? 네 이름은 무엇이냐?

마리나: 제 이름은 마리나입니다.

페리클레스: 신들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너를 보내서 나를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어!

마리나: 진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 가겠습니다.

페리클레스 그래. 하지만, 너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네 이름이 마리나라니.

마리나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왕이셨대요.

페리클레스 왕? 마리나라고?

마리나 더 이상 전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페리클레스 너, 정말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나? 맥박이 뛰는 사람이나?
내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냐? 어디서 태어났냐? 왜 마리나라는 이름을 얻었냐?

마리나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페리클레스 바다! 네 어머니는?

마리나 어머니는 어느 왕의 딸이었습니다.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모 리코리다가 울면서 얘기해 주곤 했어요.

페리클레스 잠깐 (방백) 꿈인가. 내 딸은 땅에 묻혔는데
너, 자라난 곳은 어디냐? 네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야겠다.

마리나 왕이셨던 아버지가 저를 타서스에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클레온과 그 사악한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사서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해적들이 저를 구했지요.
그리고 미탈레네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 페리클레스 왕의 딸입니다.

페리클레스 헬리카누스!

헬리카누스 부르셨습니까?

페리클레스 헬리카누스, 나를 때려주요. 칼로 베어주요. 당장 고통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이 바다처럼 나를 덮어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아.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낳았지만, 오늘은 내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바다에서 태어나, 타서스 땅에 묻히고, 다시 바다에서 찾은 내 딸!
헬리카누스, 이 아이가 마리나요.
네 어머니 이름이 뭐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마리나 그 전에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페리클레스 나는 타이어의 왕, 페리클레스다.

마리나 제 어머니의 이름은 타이자입니다.
저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그분의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딸이 되는 것입니까?

페리클레스 마리나, 나의 딸이 맞구나! 나에게 옷을 가져와라!
헬리카누스, 내 딸은 타서스에서 죽은 게 아니었어.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리게. 자네가 모셔야 할 공주일세. 이 분은 누구신가?

헬리카누스 미틸레네 총독이십니다. 전하를 도와주셨습니다.

페리클레스 환영하오! 내 예복을 가져오라니까! 눈 앞이 어지럽다.
이 음악 소리는 뭐자?

헬리카누스 전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페리클레스 안 들려? 이 천상의 소리! 마리나, 들어봐라.

리시마커스 거스르지 말고 전하의 뜻을 따르십시오.

페리클레스 이 기묘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리시마커스 전하, 들립니다.

페리클레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이다! (잠이 든다)

리시마커스 편히 쉬시도록 우리는 물러갑니다.
내 말에 따라주어 고맙습니다.

페리클레스 이외에 모두 퇴장. 순결의 여신 다이애나가 페리클레스 옆에 환영처럼 나타난다.

다이애나(목소리): 에페수스에 있는 내 신전으로 가서 제물을 바쳐라.
나의 여사제들이 사람들 앞에 모였을 때,
네가 어떻게 바다에서 아내를 잃었는지 이야기해라.
너의 고난과 딸의 고난을 상세하게 이야기해라. 내 명을 따른다면 행복을 얻을 것이다.

페리클레스 순결의 여신, 은빛 여신이여! 명을 따르겠나이다. 헬리카누스!

헬리카누스, 리시마커스, 마리나 등장

페리클레스 타서스로 가서 날 배신한 클레온을 치려던 계획을 바꾸어야겠다.
먼저 할 일이 생겼어. 우리는 에페수스로 간다. 일단 출발하면 이유를 말해주겠다.
(리시마커스에게) 물에 잠시 내려 항해를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리시마커스 전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물에 오르시면 간히 청할 것이 있습니다.

페리클레스 좋습니다. 내 딸에게 청혼을 한다 해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 딸에게 성심을 다하신 것 같으니깐요.

리시마커스 전하, 제가 모시겠습니다.

페리클레스 가자, 내 딸, 마리나.

모두 퇴장.

5막 2장

가우어10: ‘네가 어태를 갔다 이제야 나를 찾아 왔느냐’
페리클레스, 마리나를 또 보고 다시 보며
자식 찾은 기쁨에 지금까지의 고초가 눈 녹듯 사라지네
리시마커스와 마리나의 연을 이어주기 전에
다이애나 신과 약속한 일이 있으니 에페수스로 향하네

순풍에 돛을 달아 달리는 배를 이제 어느 운명이 막을 겐가
깃털처럼 가벼이 다이애나 신전에 도착하였네

다이애나의 신전 한쪽에서 타이자와 여사제들, 그리고 세리몬 등장. * 여사제들은 광대들이 맡는다.
반대 쪽에서 페리클레스, 마리나, 리시마커스, 헬리카누스, 그리고 다른 신하, 시종들 등장.

페리클레스: 순결의 여신 다이애나여! 당신의 명을 받들어 여기 이곳에 타이어의 왕이 왔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펜타폴리스에서 이름다운 타이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자는 바다에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리나라고 이름 지은 딸 아이를 남겼습니다.

타이자: 목소리, 저 모습! 당신은, 당신은... 페리클레스 왕! (기절한다)

페리클레스: 무슨 일인가?

세리몬: 존귀하신 분이여,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분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페리클레스: 그럴 리 없소 내 아내는 이 두 팔로 배 밖으로 던져버렸소

세리몬: 바로 이 해안가요요.

페리클레스: 그렇소.

세리몬: 부인을 보살피십시오 너무 기뻐 정신을 잃으신 겁니다.
태풍이 심하던 어느 날 새벽에 왕비께서 이 해안에 밀려 오셨습니다.
제가 관을 열어보니 값진 보석들과 함께 부인께서 누워계셨습니다.
기운을 차리시게 한 후 이 곳 신전으로 모신 것입니다.
부인께서 깨어나십니다.

타이자: 남편을 보게 해주세요. 그분이 틀림없어요. 아, 페리클레스 목소리도 얼굴도 똑같아.

페리클레스: 타이자의 목소리!

타이자: 그 타이자가 바로 저예요. 죽은 줄 알고 바다에 묻혔던 타이자.

⁵ ‘춘향가’ 중에서 ‘어시또 이몽룡과 춘향 상봉’

페리클레스 이건, 이건 신이여
 이제 왕비의 입술에 닿아 내가 녹아 없어진다고 해도 신들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와요, 이제는 내 팔 안에 묻히시오

마리나: 어머니! (타이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페리클레스 보시오, 당신의 딸 마리나요

타이자: 내 딸

페리클레스 타이자, 당신을 이렇게 살아있게 해준 은인이 누구요? 내가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구요?

타이자: 세리몬, 바로 이 분이세요. 신께서 이 분을 통해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페리클레스 진심으로 고맙소
 타이자, 여기 이 왕은 우리 딸의 약혼자요,
 마리나와 펜타폴리스에서 결혼을 시킵시다.
 이제, 이 흉한 얼굴 장식은 잘라버려야지.
 14년 동안 한 번도 면도날을 대지 않은 이것 말이야.
 너의 결혼식 날 나도 말끔해 보여야지.

타이자: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페리클레스 사이머니디스 왕! 하늘이시여, 그분을 하늘의 별이 되게 하소서.
 그래도 펜타폴리스에서 아이들의 혼례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여생을 보내고, 타이어는 우리 사위와 딸이 다스리게 합시다.
 세리몬 경, 왕비에 대해 못다 들은 얘기들을 듣고 싶소, 우리를 안내해 주시오.

에필로그

가우어11: 자, 이제 이 늙은 시인의 혀도 쉴 때가 되었소
 페리클레스와 왕비, 딸에게 던진 가혹한 운명의 폭풍우는
 이제 그의 고매한 정신에 웃갓을 여미고
 신의 가호와 함께 기쁨의 햇살을 비추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악행을 저질렀던 안티오쿠스 왕이나
 질투에 눈이 멀어 은혜를 흉계로 갚은 다이오니자가
 어떤 응보를 받았는지는 더 이상 말하며 입을 더럽히지 않겠소

신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살과 폭풍우를 가리지 않으나
 선인은 폭풍 속에서도 햇살을 희망하고, 악인은 햇살 속에서도 폭풍우를 저주하오

페리클레스 가족이 어떻게 운명의 바다를 건너 다시 만나는지 보셨으니
 ‘어화 여러 우리님네, 인간의 백행근본’⁶ 무엇인지
 이 늙은 시인에게 알려주어 모자란 지혜를 채워주소

⁶ ‘심청가 중에서 ‘마지막 장면’